

이기는 삶

리더의 자세

조직 사회에서의 리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양이 이끄는 사자의 무리를 이긴다는 말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유한 말이다. 리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과 리더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리더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직원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만들어라

리더는 용의 등에 올라타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조직의 실제(實勢)인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권력의 핵심 인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는 근본적인 개혁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은 썩듯이 변화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도태되고 만다. 그러므로 리더는 조직원들을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리더는 상황을 탓하지 않아야 한다. 좋

은 리더는 “~ 때문에”라는 변명 뒤에 숨지 않는다. 공(功)은 직원들의 몫으로 돌리고 과(過)는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존중받는 리더의 덕목(德目)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어 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능력이 바로 리더의 능력이다. 또한 리더는 부하의 충성심에 의존하지 않는다. 훌륭한 리더는 충성을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풀어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등용한다. 재능을 가진 자가 그 재능을 심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이다. 사람은 인정받고 대우받는 만큼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리더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 리더는 자기 통제에 능해야 하며 원수와도 웃으며 악수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빌려야 한다. 자신의 머리와 지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암흑 속에서도 길을 잃

지 않는다. 리더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할 때 앞으로 나서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 그렇다고 리더가 매사 앞장서는 것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일이 된다. 평소의 리더는 조직이라는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라

좋은 리더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진다. 리더가 되는 길은 점점 더 고독해지는 길이다. 오랜 과정에서 협조자인 동지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부하 직원도 없지만, 리더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것이다. 결국 최종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그리고 리더는 그 책임을 감내(堪耐)해야 한다. 3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이용하고, 2류 리더는 타인의 능력을 이용하고, 1류 리더는 타인의 지혜를 조직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고 한다. 리더는 조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원들의 생각을 경청하여 자신과 조직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새 나라의 새로운 말씀

여기서 영생의 나라를 건설하는 법을 선포하고 있으며, 영생의 나라를 이루는 철학과 이념을 설파하고 있다. 온전한 이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다. 사람으로서는 새 나라의 새로운 말씀을 할 수가 없으며 새로운 과학을 논할 수도 없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귀의 영이 있다고 논한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것이다. 나를 의식하면 마귀를 의식했다가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가 되는 것이다. 나를 의식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예수도 몰랐다. 이 새로운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체를 튼튼하게~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춰 엉덩이 근력과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볼까요.

주의: 무릎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구부린다. 반대쪽 다리

는 스트레칭 되도록 무릎을 펴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전사 자세, 전사 확장자세~

동작①: 서서 어깨너비만큼 양다리를 앞뒤로 확장하고 선다. 양 손은 옆구리에 붙인다.

동작②: 앞다리를 직각으로 구부린다. 양손을 앞무릎위에 얹는다.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 다리는 쪽 펴서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며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일어서 처음으로 돌아온다.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③: 선 자세에서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옆으로 확장하고 오른쪽 발끝을 90도로 펴준다.

동작④: 양손을 합장하여 앞으로 쪽 펴준다. 왼쪽 다리를 가볍게 내려 90도 각도를 이루고, 오른쪽 다리를 쪽 피고,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며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좌우 번갈아 3세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10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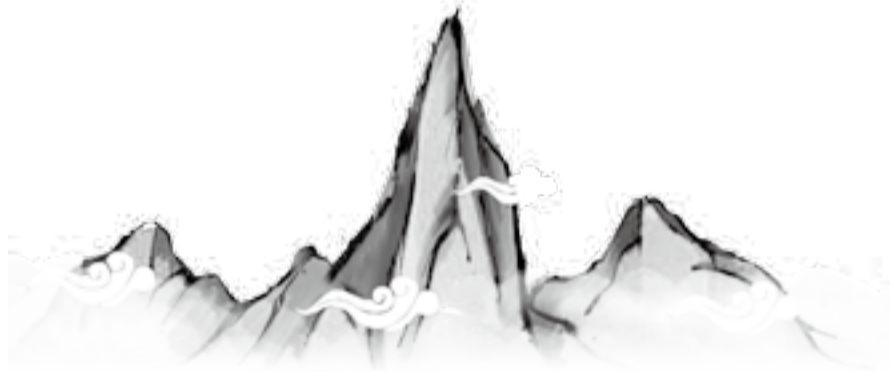
정도령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탈겁중생(영생)하느니라

성운론(聖運論)

三八之木仙運 삼팔지목선운보다 四緣微破四月天 사육원파사월천의 東方一人出世 동방일인출세하고 小木多積萬姓處 소목다적만성처에 市場木 시장목이 得運 득운하야 白面天使黑鼻將軍 백면천사흑비장군 執鞭按察人心和 집행안찰인심화로 心中善惡判端 심중선악판단하니 毫釐不差隱諱 호리불차은휘말가

삼팔지목(갑을=봄=동)으로 신선의 운수를 받아 사육원파 사월천(四月天=목은 심승(하늘)에서 동방의 의인 한 분이 세상에 나오느니라. 작은 나무가 많이 쌓인 것과 같이 각성바지의 많은 사람들이(수도자) 모인 곳(밀실)에서 감(탑)나무(市+木=시장목)가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에 나오니 이 분이 육도삼략의 마지막 주인 공 정도령(6도 81공)으로 백면 천사요 흑비 장군이니라. 안찰을 통하여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며 저울을 달 듯 마음속의 선악을 판단하시니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어 그 죄를 숨길 수 없음이라.

甘露如寶實惠大師 감로여우보례대사 正道靈 정도령이 飛出 비출하야 雷聲霹靂電閃迅 뇌성벽력전삼신에 一次二次三次 일차이차재삼차로 紫霞黃霧火燃中 자하황무화연중에 救世主 구세주가 降臨 강림하니 三八數定諸神明 삼팔수정제신명이 各率神兵總合 각솔신병총합하야 儒道更正仙儒佛 유도경정선유불로 天下文明始於長 천하명문시어간에 禮義東方湖南 예의동방호남으로 人王四維全羅道 인왕사유전라도를



道通天地無形外 도통천지무형외라 三人一夕脫劫 삼인일석탈겁일세

감로를 비가 내리듯 부어주시는 보혜대사 정도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뇌성벽력 소리와 번갯불이 번뜩이느니라. 1차 2차 3차로 자갯빛 노을과 누런 안개가 불타는 것과 같은 속에서 구세주가 강림하니 각기 신병(神兵=천군천사)들을 거느린 삼팔지목의 운을 받은 제갈공명과 한신같은 많은 신명들을 모두 합하여 유도를 다시 세우고 유불 선을 하나로 통합하느니라.

천하명문이 시작도 끝마침도 간방에서 이루어지나니 간방인 예의동방 남조선하고도 서호(김포=서호진인출생)로 오시어 인존 하나님(人王)으로서 불사영생의 도를 펴시니 인존 하나님의 불사영생의 무극대도는 천지의 끝까지 유형무형과 무형의 밖에 까지도 통하느니라. 정도령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탈겁중생(영생)하느니라. 삼인일석은 다투 수(夥)자의 파자. 탈겁중생은 사람이 죽지 않는 영생의 몸(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남을 말한다.

天文術數從何處 천문술수종하처고 黃房杜禹出沒時 황방두우출몰시라 一心和合是真真人 일심화합사비진인

末復合一真人 말복합일진인일세 訪道君子修道人 방도군자수도인야 地靈龍 지계룡만창단말가 寒心 한심하다 世上事 세상사야 死未生初此時 사말생초차시로다 陽來陰退仙運 양래음퇴선운에는 白寶座 백보좌의 神判 신판이라 非禮勿視非禮勿聽 비례물시비례물청 行住坐臥端正 행주좌와단정하소 先聖預言明示 선성예언명시하라 逆天者 역천자는 亡망하리라 陰陽木天鷄水邊 음양목천계수변의 脫冠還家二十日草 탈관환가이십일초 愛好者 애호자는 亡 망하느니 末世君子銘心 말세군자명심하소

천문술수는 어디를 따라가는가? 황방(黃房=田) 두우(杜禹=斗牛) 즉 정도령이 출몰하는데 좇아가느니라. 일심으로 화합한 시비 많은 진인인요. 마지막에 유불선을 하나로 합하는 진인일세. 도를 찾는 군

자들 수도인들이, 지계룡만 찾는다는 말인가? 한심하다 세상사여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불사영생의 신천지가 시작되는 이때로다. 양신(陽神=빛의 신)이 오고 음귀(陰鬼=어둠의 마귀)가 물러가는 선운에는 백보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이라.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지라. 행주좌와 즉 다닐 때나 집에 머물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웠을 때 언제라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소. 옛 성인의 예언 말씀을 밝혀 드러내 보이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낙태(陰陽果)하거나 술(酒)과 담배를 좋아하는 자는 망하느니 말세의 군자들은 명심 하소

無勿不食過去事 무물불식과거사요 食不食 食불식의 來運事 내운사라 從鬼者 종귀자는 負戾水火 불수화 眞逆者 진역자는 禾千里 화천리라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간 일이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감로 해인)은 앞날의 일이라. 마귀를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는 자는 멸종이 되리라.*

박명하 / 고서연연구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샘 | 묻지마 폭행을 참은 태권도 관장

부산의 한 태권도 관장이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행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태권도장 건물 앞에 세워둔 차량 근처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폭행은 A씨가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운 직후 벌어졌다. A씨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한 남성이 "네가 선생이나? 관장이나?"라며 사대질을 하며 다가왔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A씨 뒤통수를 때렸다고 한다.

A씨는 이 남성이 아이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것이 우려돼 곧바로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닫고 상대 남성을 밀치며 방어했다. A씨가 "누구신데 잘 때리냐" "잘 아시냐"고 묻자 이 남성은 A씨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둘러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과 A씨가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을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 조선일보 2021. 10.2 기사

자유율법에 의하면 남이 때리거나 욕을 하면 참아야 한다. 나라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나를 때리고 미워하는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대항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감사를 해야 자유율법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A씨는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 꼭 깨물며 참았다고 한다. 그는 승리제단 신도도 아니고 모르긴 몰라도 자유율법을 배우지 않았을 것임에도 율법대로 행동을 했다는 점이 놀랍다.

A씨는 만일 폭행한 남성이 아이들을 해치려고 했으면 결코 참지 않고 맞서 싸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힘이 없거나 정의감이 없어서 맞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밀실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에 느닷없이 동료로부터 주먹다리를 맞았다고 했다. 그때 조희성님께서는 속으로 하나님께 '이길 수 없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동료가 부리나케 도망가버렸다고 간증하셨다. 한주먹맞고 되지 않는 약한 자가 폭력을 휘둘렀지만 그에 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화를 내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묻지마 폭행을 참은 태권도관장처럼 세상에서도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아 구세주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금방 올 것 같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